

## ■ ( 언론 동향 ) 2021.5.18. “농수축산신문” 보도내용

### ○ [이슈]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사료업계 초비상

중국이 옥수수과 대두를 대량 수입하기 시작한 지난해 9월을 기점으로 폭발적 상승을 시작했던 국제 곡물가격이 2012년 이후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국내 사료업체들의 경영에 비상이 걸렸다.

사료업계 전체가 지난해 4분기부터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해 허리띠를 졸라맸지만 과도한 원가부담을 버티지 못하고 사료업체들은 상반기 가격 인상을 단행했으나, 그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최근 사료원료 가격 상승세를 보면 주원료 옥수수의 경우 사료업계의 지난해 구매평균단가는 톤당 약 200달러 수준이었으나, 지난 1분기에는 약 240달러까지 수직 상승했고 지난달은 평균 248달러 선을 기록했다.

최근 국제 곡물가격 폭등의 원인으로는 중국의 수입량 급증이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다. 중국은 지난해 9월부터 자국 내 옥수수 재고 부족으로 내수가격이 꿈틀거리자 가격 안정을 위해 수입량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세계 각국이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공급한 유동성 자금이 인플레이션과 상품시장 투기 과열을 유발하면서 원자재 가격 상승세를 더욱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소맥, 대두 등도 주요 재배지의 기상이변으로 인한 작황 우려가 제기되고 옥수수 대체 수요까지 집중되면서 옥수수와 마찬가지로 2010년 초반의 최고가를 경신하는 등 연일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팜박, 야자박, 채종박 등의 부원료 가격도 주원료 가격의 상승세를 따라 상승하고 있다.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사상 초유의 곡물가격 초강세에 중국은 국가차원에서 위기수습에 나선 상황이다.

우리나라 역시 대응책 마련에 한창이다. 국제 곡물가격 상승은 사료업계의 어려움을 촉발하고 이는 축산농가에게까지 피해가 이어지기 때문이다.

사료업계 한 관계자는 “곡물가격 강세가 당분간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 속에서 경영 안정을 위해서는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 중으로 또 한차례 가격 인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옥수수 파종이 끝난 브라질과 현재 파종을 진행하는 미국의 향후 작황 상황에 따라 하락할 수도 있다는 기대감도 있지만, 이미 원자재 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한 상황에서 일부 하락하는 것으로 경영 위기가 해소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송형근 기자 >